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측량 할 수 없는 은혜

퍼즐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듯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굵직한 일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험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하셔서 세계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신 일, 수많은 신학교들 중 저를 웨스트민스터로 인도하신 일, 북미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한국에 나오게 하신 일, 중현교회와 지구촌교회, 그리고 개척교회를 경험하게 하신 일 등등,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서울교회 담임목사 위임식에 임하는 제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제 인생의 스토리를 한 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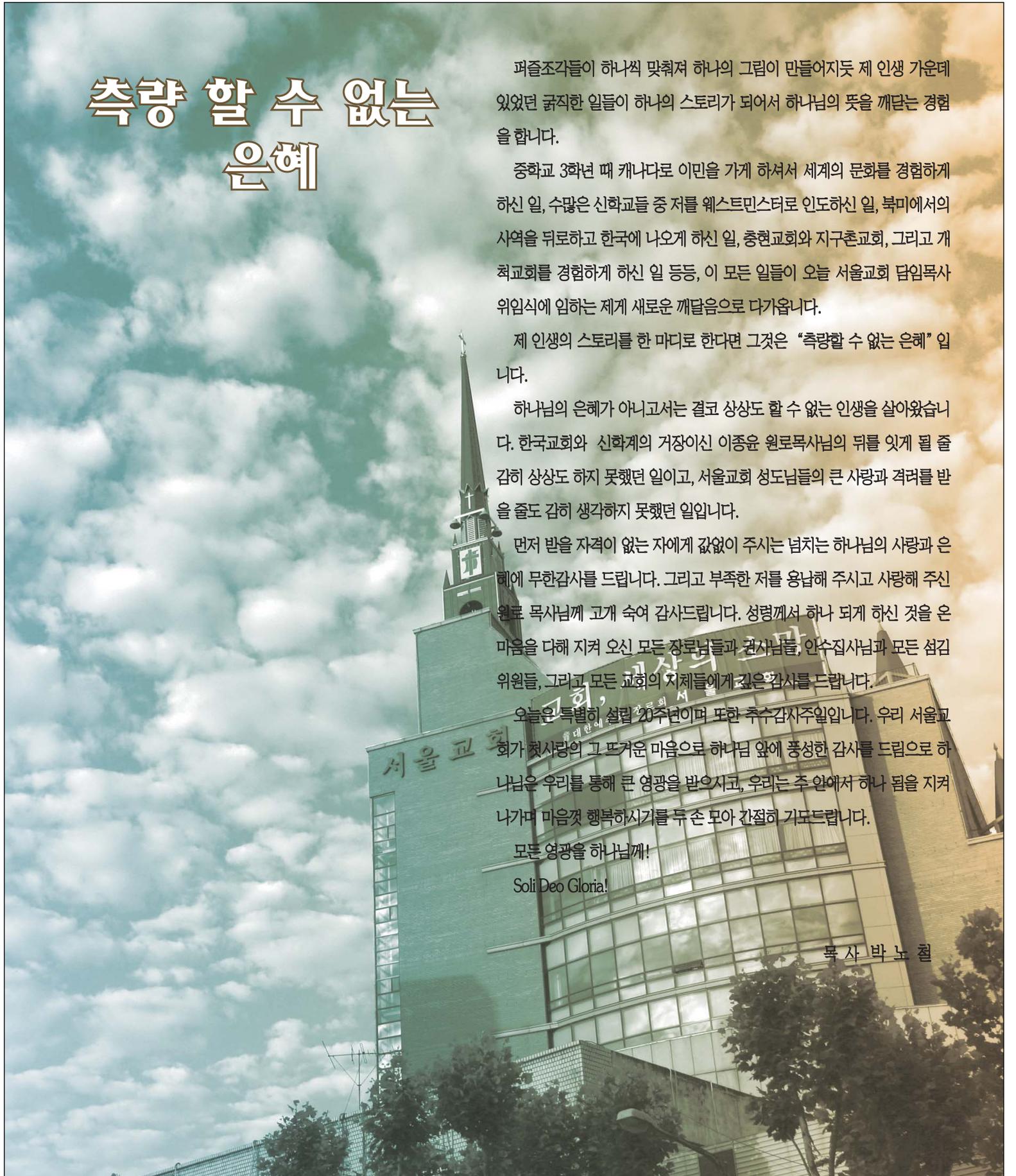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국교회와 신학계의 거장이신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뒤를 잇게 될 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큰 사랑과 격려를 받을 줄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먼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원로 목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지켜 오신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과 모든 섬김 위원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립 20주년이며 또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첫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됨을 지켜 나가며 마음껏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Soli Deo Gloria!

목사 박노철



교회설립20주년



어두움과 광기의 난무를 뚫고 '한국교회 갱신'의 횃불을 치켜든  
성도들이 있었다.  
사도적 신앙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 '갱신한 교회'가 아니라  
'날로 갱신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무릎을 꿇었다.

철저한 말씀 중심의 설교자요,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로잔 정신 구현에 헌신한 복음주의자 이종윤 목사와 함께  
1991년 늦가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딩에  
'서울교회'의 간판을 걸고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의 비전을 좇아 새 출발을 했다.

그리고 달려온 20년은 숨 가빴다.  
전 세계 150개국 영적 리더를 훈련시켜 자국 복음화의 기수로 삼은  
'김치(KIMCHI)세미나,'  
전국에서 온 연인원 만 3천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영적 활력을 고취시킨  
'목회자세미나,'  
농어촌 교회 부흥을 위한 '농어촌 100교회 운동,'  
군 복음화를 위한 '비전2020운동,' 전 세계 80여명의 선교사 파송,  
새벽을 깨우며 영적 전사로 무장시킨 '홍해작전,'  
거룩한 낭비를 표방한 사랑의 '바자,'  
그리고 성경 1,000독 대장정, 성경 필사 등  
선교와 교육과 구제를 위한 수많은 거룩한 사역의 연속이었다.

스무 살 청년으로 크는 동안 우리의 역동적인 변화는  
한국 교회가 괄목하며 지켜 본 경이로움이었다.  
아무도 엄두를 못 내던 IMF 외환위기 시절 온 교인의  
기도와 헌신으로 예배당을 건축했고,  
국내 교회로는 2번째로 대형 파이프로르간을 설치했으며,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한 아가페타운과 호산나학교 설립으로  
장애인 사역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리고 2009년, 우리는 2대 목사인 박노철 목사를 만났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 박노철 목사는  
다락방 부흥과 금요 기도회, 은사 발견 등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감수성을 자극하며  
'스무 살 청년 서울교회'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년 축적된 영적 에너지로 새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는  
이제 젊은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독수리의 힘찬 날갯짓으로 비상하고자 한다.

김민철 집사 (편집부)



축시

# 스무살 청년 서울교회여

울음이 붉게 타는 어느 가을  
햇빛은 시간  
떨어지는 굵은 눈물  
거친 십자가에 질끈 동여매고  
뺏속 깊은 침묵으로 태동하는  
거룩한 비명이어

오직 그 피로만  
장렬히 터뜨리는 생명의 결정(結晶)  
하늘 심장 위 고이 엮고  
마지막 피한방울  
기둥을 세우며  
찢겨진 살 조각  
지붕을 덮고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 들린 일곱 금 촛대  
불 밝혀

애타도록 푸르른 새벽  
하늘 샘 단물 내어  
기적의 맥박 살아나고  
젊은 기슴 혈관마다  
순교자의 울음 출렁이는  
마지막 그루터기  
스무 살 청년  
서울교회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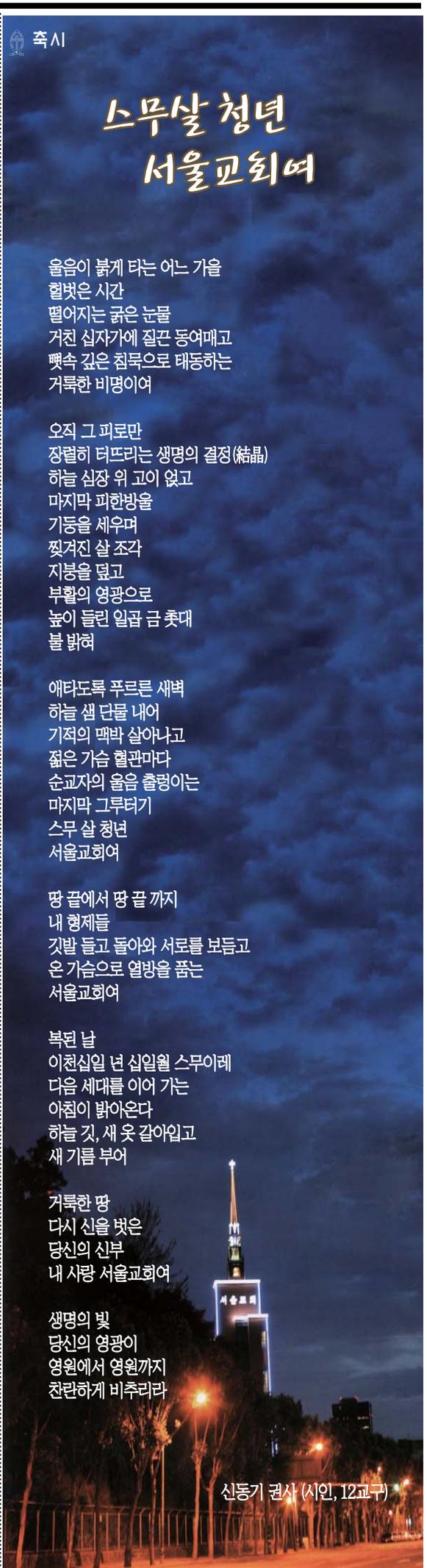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내 형제들  
깃발 들고 돌아와 서로를 보듬고  
은 가슴으로 열방을 품는  
서울교회여

복된 날  
이천십일 년 십일월 스무이레  
다음 세대를 이어 가는  
아침이 밝아온다  
하늘 깃, 새 옷 갈아입고  
새 기름 부어

거룩한 땅  
다시 신을 벗은  
당신의 신부  
내 사랑 서울교회여

생명의 빛  
당신의 영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천란하게 비추리라

신동기 권사 (시인, 12교구)



박노철 2대목사 위임 축하글

# 축하, 축하드립니다!

## 복음주의 신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박노철 목사님을 제 2대 위임목사로 모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과 위임받으시는 박노철 목사님께 세 가지 말씀으로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 박노철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회는 설립자이신 이종윤 목사님께서 복음적인 신앙과 에큐메니칼한 열린 신학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러한 꿈을 가진 성도들이 20여 년간 가꾸어온 건강한 교회에서 제 2대 담임목사로 위임받아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은 은혜 중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는 준비된 박노철 목사님을 위임목사로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박목사님은 어린 시절 국내에서 자라고 캐나다와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시고 귀국해서 총신대와 장신대의 신학을 폭넓게 공부하시고, 복음주의 신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목회 훈련도 다양하게 하여 교과의 벽을 넘나들며 충분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훈련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품고 교과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으며 미래교회의 이상적 모형을 꿈꾸며 이종윤 목사님과 신학과 신앙이 합일하는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모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셋째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서울교회와 서울강남노회와 한국교회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여 분열의 아픔과 상처 투성이인 어두운 현실 속에서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의 지도자인 이종윤 목사님께서 에큐메니칼 신앙과 신학 진영에 서울교회를 설립하신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과 서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과 개혁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에 앞장서서 열린 신앙과 신학으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 온 열정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한 후계자로 준비된 박노철 목사님을 세우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서울교회가 성서적이고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한 신앙과 신학 위에 정진한 영적일치를 이루어 나가면서 한국교회의 연합일치를 이루어내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하나 되는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장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서울교회는 참된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쉬없이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목회의 발자취를 담은 코람데오 1,2(서울교회 20년사)에 수록된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서울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이종윤 목사님의 은퇴하신 후 1년은 시무20년을 능가하는 큰 교훈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행일치의 온전한 삶을 사신 이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에 교회에서 먼 거리에 교회전세 사택으로 주거지를 옮기시고 교회당 안에 원로목사님의 전용 사무실을 두지 않으시며 행정일체를 관여하지 않으실 뿐 아

니라 교회에 출석도 안 하시는 거룩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흔탁한 한국교회사에 참신한 방향제시를 하여주시는 이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한 목사이십니다. 연세대부총장 이종석 박사의 말씀대로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이 시대의 칼빈이십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능히 향도시며 서울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회를 성실하게 계승하실 분으로 박노철 목사님을 당회와 공동의회가 위임목사님으로 청빙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됨은 큰 영광이며 서울교회의 축복입니다.

제2대 박노철 위임목사님의 하나님 목회의 행군 나팔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음주의 신앙과 기도로 준비하고, 패기와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를 이루고자 눈물겹도록 목양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풋대를 향하여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와의 격식 없는 만남과 대화는 서울교회의 훈훈한 사랑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로목사님을 변함없이 존경하며 공경함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세워지는 성숙한 서울교회는 이제 당회원들이 신령한 통찰력과 교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통하여 박노철 목사님을 중심하여 하나가 되는데에 힘쓰겠습니다.

서울교회 온 성도들은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칼빈 이종윤 목사님을 원로목사님으로 모시고 20년간 신앙생활을 하였고, 이제 신실하시고 패기 있고 사랑이 넘치는 박노철 위임목사님을 모시고 힘찬 제2기를 출발하였으니 우리 모두 순종하며 다같이 발맞추어 가시어 없는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주님의 칭찬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 첫사랑을 회복하는 서울교회



전인화 은퇴권사

20년전 늦가을, 갑자기 불어닥친 토네이도 거센 바람에 거목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몇 십 장의 나뭇잎이 날아와 서울교회의 대장정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꽤나 젊은 권사로서 현숙하고 지혜롭고 용감하여 오직 교회만을 위한 여전사들이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한 줄기 사선을 넘어 켄그리아의 바울 사도처럼 삭발하고 오신 이종윤 목사님, 우리 권사들은 이 목사님을 선두에 세우고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아낌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셋집에서 셋집으로 전전하면서도 서울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무섭게 불타 올랐습니다.

민족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불길은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서 김치세미나로 이어졌고, 온 교인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서울교회!

드디어 2000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기도하던 중 기념비적인 대지동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시어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여호와 너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20년을 지나며 옛추억이나 회상하지는 것

이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며 행여라도 교회를 향한 첫사랑의 색깔이 퇴색될까,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식어졌을까 하여 서울교회의 1대 권사로서 성도 여러분들께 서울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자 당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음 세대의 그늘이 되는 든든한 고목이 되어 서울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오고오는 후손들에게 덕스러운 신앙의 선배로 남고 싶습니다. 서울교회가 20년 생일을 맞는 오늘, 2대 박노철 목사님의 위임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때에 오직 복음으로 날로 부흥 성장하는 독수리 같은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감사, 감사, 또 감사

## 오늘은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기념주일

### -주일에배 시간에 성찬예식-

## 박노철 2대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

###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이며 동시에 교회설립 20주년기념과 박노철 2대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를 드리는 잔치날이다. 주님 앞에 죄인이요 보잘것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설립을 허락하

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일예배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찬양예배시간에는 박노철 2대목사 위임감사예배를 드린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한다.

## 2012년 섬김위원 임명

### -12월 11일(주)에 발표-

2012년도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봉사 할 모든 섬김위원은 12월 둘째 주일에 일괄 발표된다.

교사, 찬양대, 각부서의 섬김위원은 해당 예배 시간에 임명받게 된다.

## 스데반회 정기총회

### 12월 1일(목) 오후 7시 101호

제1·2스데반회(1회장 : 김진환 집사, 2회장: 오치열 집사)는 12월 1일(목) 오후 7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새로운 회장과 임역을 임명하는 자리이다.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총회에 스데반회원 전원은 부부동반으로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

## 육군23사단 진중세례식

### 12월 3일(토)

육군 23사단 진중세례식이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세례식, 성찬식이 12월 3일(토)에 거행되며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 12월 행사표

- 12월 1일 (목) - 스데반회 총회
- 12월 7일 (수) - 권사회 살롬권사회 총회
- 12월 9일 (금) - 새해 묵회정책 발표회
- 12월 11일 (주) - 2012년 서리집사 및 섬김위원 임명
- 12월 18일 (주) - 교사총회  
찬양대 총회는 12월 중  
성탄축하 찬양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 12월 24일 (토) - 성탄전야 축제
- 12월 25일 (주) - 성탄절 새벽예배 / 성탄절 감사예배  
항존직 직분자 은퇴식, 장로 안식년,  
교회학교 졸업감사, 주간성경공부 수료,  
전도시상  
찬양예배 후 특별제직회
- 1월 1일 (주) - 송구영신 예배 / 순결서약식

## 교회력의 시작

### - 대림절(待臨節) -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the Advent,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로부터 시작된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이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이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소망의 절기(Season of Hope)이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금년은 11월 27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대림절을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한다.



### 감사합니다

사명자대회 기간중 특별새벽기도회와 24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하고 태신자를 열매로 바친 이들, 새벽 조찬을 준비하고 안내, 주차관리를 도우신 여러분께 감사,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지나온 세월 쌓여진 지혜의 기초 위에 스무살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서울교회가 더욱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지난 1년 동안 내려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3. 서울교회 제 2대 박노철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부흥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도록
4. 이어지는 2011년도 연말 계획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서울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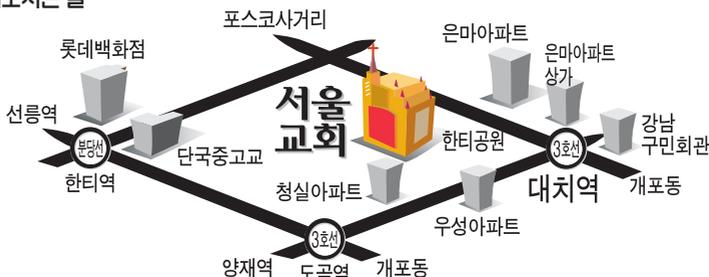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월 29일(화) 한장총대표회장, 상임회장 이취임감사예배시 격려시를 한다.
- 이사: 지혜영 전도사 강남구 역삼2동 783번지 영빌라트 201호 Tel. 010-4523-8784
- 개인전 : 4교구 오은경 성도 12월 1일-7일, 강남구 신사동 더블릿갤러리
- 특녀 : 1교구 오병호 집사 양세정 집사
- 주간식당봉사: 도르가전도회(11.27) 루디아전도회(12.4)
- 금주의 식사 : 식사제공: 김만윤 성도 장호림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떡 제공: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